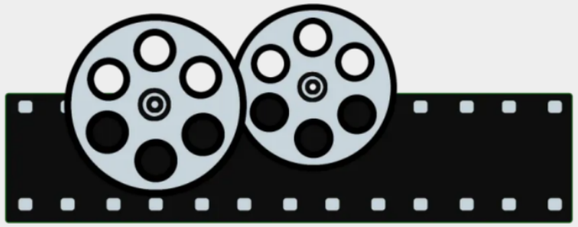


시네마그린틴 상영작 소개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주 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SEOUL INTERNATIONAL ECO FILM FESTIVAL

협 찬 HYUNDAI MOTOR GROUP

지 원 사랑의열매

시네마그린틴 상영작 소개 전체 관람 추천

심화 수업 자료 제공

숲의 수호자 페이퍼 베어
The Paper Bear

감독: 아릭스 잘라체

미국 I 2025 I 107분 I 다큐멘터리

플로리다 숲 속에서 한 아버지가 스마트폰 중독의 십대 아들과 흑곰을 추적하는 여정에 나선다. 스마트폰과 단절된 아들은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야생으로 들어갈수록 현실과의 경계는 흐려진다.

맞춤형 활동지 제공

그레이스
with Grace

감독: 디나 므웬데, 율리아 다르

노르웨이 I 2024 I 29분 I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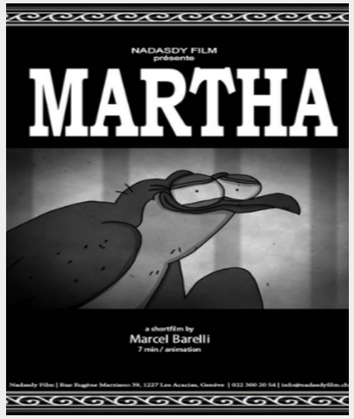
큰 꿈과 밝은 매력을 지닌 그레이스는 케냐에서 자라며 기후 재난을 마주한다. 반복되는 가뭄과 폭풍은 가족을 위협하고, 비마저 더 이상 위험이 된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그의 여정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

시코킨응기사안나수크: 다시 얼지 않는 바다
Sikoqqinngisaannassooq

감독: 애덤 세비르

노르웨이, 그린란드 I 2025 I 16분 I 다큐멘터리

그린란드의 외딴 이누이트 공동체는 급격한 해빙 변화에 직면해 있다. 사라져가는 겨울 환경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들리고, 젊은이들은 이를 해빙 위에 새긴다. 북극해는 머지않아 여름철 해빙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의 전통과 언어, 문화 역시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마지막 나그네 비둘기, 마사
Martha

감독: 마르셀 바렐리

스위스 I 2024 I 6분 I 다큐멘터리

1910년대에 제작된 오래된 무성 다큐멘터리가 발견되어 복원되었다. 이 영화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았던 새이자 수십 년 만에 인간의 잔혹함으로 멸종당한 여행비둘기의 이야기를 전한다. 마지막 여행비둘기인 마사의 음성으로 영화는 더욱 깊어진다.

시네마그린틴 상영작 소개 전체 관람 추천

밎춤형 활동지 제공

여긴 사람이 산다
People Live Here

감독: 가브리엘 코테

캐나다 I 2025 I 12분 I 다큐멘터리

평화롭던 마을에 주황색 콘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면서 도시는 혼란에 휩싸인다. 건축 유산은 사라지고, 거리는 AI가 구동하는 거대한 타워로 대체된다. 급진적 변화를 요구하는 반란이 일어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공동체 솔라펑크 커뮤니티가 솟아오른다.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A Song for My Land

감독 : 마우리시오 알보르노스 이니에스타

아르헨티나, 독일, 콜롬비아 I 2024 I 95분 I 다큐멘터리

아르헨티나 한 시골 마을에서 음악교사 라미로 레스카노는 농약 살포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학생들과 함께 이를 알리는 노래를 만들지만 반발에 부딪히고, 더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환경판 우드스톡'을 기획한다.

심화 수업 자료 제공

스노우 베어
Snow Bear

감독: 애런 블레이스

미국 I 2024 I 11분 I 다큐멘터리

친구를 찾아 나서는 외로운 북극곰의 이야기를 그린다.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애니메이터 애런 블레이스가 완성한 수작업 애니메이션으로, 여정의 유머와 애틋함을 모두 담아낸다.

시네마그린틴 상영작 소개 전체 관람 추천

도와줘 비즈
Sos Bees

브라질 | 2025 | 2분 | 광고

브라질 남부를 강타한 홍수 사태 당시, BEES는 24시간 만에 음료 판매 앱을 긴급 구호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실시간 데이터와 물류망을 활용해 피해 식당에 기부 물품과 지원 서비스를 전달하며 총 6,360곳을 지원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술을 공감으로 확장한 사례로 남았다.

괜찮은 소리
Sounds Right

덴마크 | 2025 | 2분 | 광고

유엔 박물관–유엔라이브와 스포티파이가 공동 기획한 '괜찮은 소리' 프로젝트는 자연을 비인간 아티스트로 소개하고, 자연의 소리를 저작권 수익으로 연결해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지원한다. 1억 5천만 회 이상의 스트리밍을 통해 약 22만 5천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며, '음악을 듣는 행위'가 환경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리빙 패브릭
Living Fabric

콜롬비아 | 2025 | 2분 | 광고

콜롬비아에서는 오랜 분쟁으로 기름 유출 사고가 반복되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피케 섬유와 미생물을 결합한 생분해성 소재 '리빙 패브릭'은 약 30일 내 기름 오염을 중화하며,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오픈소스 솔루션으로서 환경 복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다.

아마존 그린벤토리
The Amazon Greenventory

브라질 | 2025 | 2분 | 광고

나투라는 AI와 드론 기술, 지역 사회의 지식을 결합해 아마존 나무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6개월 만에 400km²를 매핑했고, 화장품 원료로 활용 가능한 약 3만 그루를 확인하며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산림 보존이 벌채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작품들은 칸 라이언즈 작품으로 러닝타임이 2분 내외입니다.

시네마그린틴 상영작 소개 전체 관람 추천

마인필드 허니 프로젝트
Minefield Honey: Harvesting Hope

우크라이나 | 2025 | 2분 | 광고

커넬의 '마인필드 허니'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의 지뢰 매설 농지를 새로운 수입원으로 전환하는 시도다. 드론을 활용해 수분 매개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꿀을 생산하고, 그 수익은 지뢰 제거와 농업 재건에 사용된다. 이것은 지뢰로 인해 단절된 농지의 재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물 경보
Animal Alerts

미국 | 2025 | 2분 | 광고

펫페이스의 '동물 경보'는 스마트 목걸이를 활용한 AI 기반 지진 경보 시스템이다. 반려견의 생체 신호를 분석해 초기 지진 패턴을 감지하고, 매체를 통해 경보를 전달한다. 리마에서 시범 운영된 결과, 총 42건의 지진을 감지해 1,200만 명의 주민에게 알렸으며, 동물 데이터의 재난 대응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맞춤형 활동지 제공

나무 특파원
Tree Correspondents

미국 | 2025 | 2분 | 광고

현대자동차의 '나무 특파원'은 '아이오닉 포레스트'를 나무가 기후 상황을 전하는 AI 기반 뉴스룸으로 확장한 프로젝트다. 센서와 기상 데이터, 맞춤형 LLM을 통해 생성된 기사는 8,000명 이상의 기자와 500여 개 언론사에 공유되며 새로운 정보원으로 활용됐다. 이는 기술을 통해 환경 데이터를 전달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제시한다.

페디그리 카라멜로
Pedigree Caramelo

브라질 | 2025 | 2분 | 광고

페디그리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믹스견 '카라멜로'를 공식적으로 조명하며, 믹스견에 대한 편견에 도전했다. 전국적 관심과 함께 입양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됐고, 그 결과 입양 건수는 218% 증가했다. 믹스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입양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캠페인

위 작품들은 칸 라이언즈 작품으로 러닝타임이 2분 내외입니다.

시네마그린틴 상영작 소개 전체 관람 추천

심화 수업 자료 제공

리-커머스 아타카마
Re-Commerce Atacama

브라질 | 2025 | 2분 | 광고

'리-커머스 아타카마'는 이커머스를 환경 보호 활동으로 전환한 프로젝트로, 세계 최대 의류 폐기물 매립지 중 하나인 아타카마 사막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다. 수거한 의류를 배송비만 받고 제공해 5시간 만에 300장이 소진됐고, 결과적으로 약 2톤이 수거됐다. 이 순환형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1837 티파니 블루 보호하기
1837 Tiffany Blue Conservation

미국 | 2025 | 2분 | 광고

티파니는 '1837 티파니 블루'를 해양 보존 프로그램으로 확장시켰다. 약 1,300만㎢ 해양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브랜드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며, 럭셔리의 의미를 재정의한다. 이러한 활동은 Z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화 수업 자료 제공

아타카마 패션위크
Atacama Fashion Week

브라질 | 2025 | 2분 | 광고

데시에르토 베스티도와 패션 레볼루션이 세계 최대 의류 폐기물 매립지에서 '아타카마 패션 위크'를 연다. 버려진 옷으로 만든 의상을 선보인 행사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관심을 모았고, 칠레 의류 매립지에 대한 검색량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화 수업 자료 제공

픽서블
Fixables

네덜란드 | 2025 | 2분 | 광고

필립스는 교체보다 수리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한 '픽서블'을 출시하고, 3D 프린팅 부품 오픈소스 플랫폼을 통해 교체 부품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순환형 생태계 구축을 시도한다.

위 작품들은 칸 라이언즈 작품으로 러닝타임이 2분 내외입니다.

시네마그린틴 상영작 소개 초등학생 고학년 추천

맞춤형 활동지 제공

더스트 투 더스트
Dust to Dust

감독 : 코사이 세키네

일본 I 2024 I 89분 I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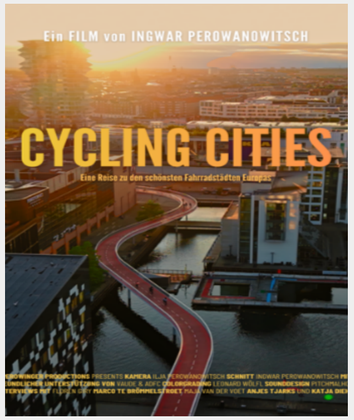
일본의 저명한 디자이너 유이마 나카자토가
패션 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케냐로 향한다

더 버드
The Birds

감독 : 데이비드 앨런

영국 I 2026 I 52분 I 다큐멘터리

잉글랜드 동부 워시 만의 갯벌에서 수백만 마리 물새의 장대한 비행이 펼쳐진다. 촬영감독 마틴 돈은 도요물떼새 무리와 한 마리의 맹금(매) 사이의 관계를 따라가며, 자연을 기록해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자전거로 만드는 도시
Cycling Cities

감독: 잉바르 페로바노비치

독일 I 2025 I 84분 I 다큐멘터리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 도시들을 조명하며, 자동차에서 자전거 중심으로 이동 체계를 전환한 과정을 따라간다. 또한 파리의 사례를 통해 기후 친화적이고 기후 회복력이 강한 도시로 나아가는 방안을 살펴보고, 다른 도시들이 배울 수 있는 지점을 짚어본다.

탄소를 세는 사람들
Carbon Counters

감독: 김성은, 전치형, 백윤석, 김정각

한국 I 2026 I 65분 I 다큐멘터리

서울, 새만금, 홋카이도, 평창을 오가며 탄소를 측정하는 과학자들의 활동을 기록한다. 배출·흡수·저장되는 탄소를 믿을 만한 숫자로 번역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지만, 늘 만족스럽지 않다. 새어나가는 온실가스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따라가며, 탄소의 숫자가 과연기후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지 묻는다.

시네마그린틴 상영작 소개 초등학생 고학년 추천

도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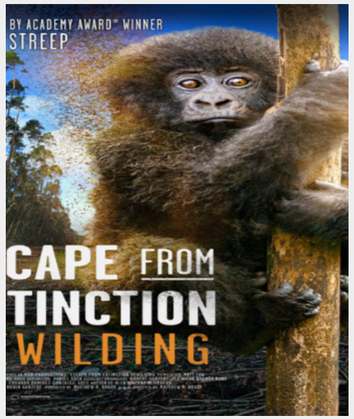
Doraeji

감독: 서평원

한국 | 2025 | 9분 | 애니메이션

파주출판단지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나윤은
양육권 분쟁중이다. 표지디자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자,
예전에 살았던 순천으로 다시 철새를 보러 간다.

시네마그린틴 상영작 소개 중·고등학생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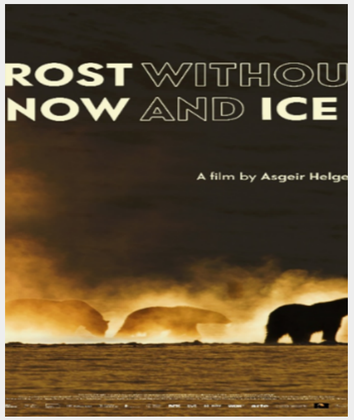


멸종을 넘어, 재야생
Escape from Extinction: Rewilding

감독 : 매튜 R.브레디

미국 I 2024 I 91분 I 다큐멘터리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세계를 구할 수 있을까?
아카데미상 수상자 메릴 스트립이 내레이션을 맡은 이 매혹적이고 영감을 주는 시의적절한 다큐멘터리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보전의 최전선에 선 과학자들을 따라간다.



스노우와 아이스를 잃은 프로스트
Frost without Snow and Ice

감독: 아스게이르 헬게스타드

노르웨이 I 2026 I 94분 I 다큐멘터리

10년간 감독은 북극곰 프로스트를 따라가며, 급변하는 북극에서 새끼를 키우는 어미의 삶을 기록한다.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 스발바르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기후변화가 터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마지막 코뿔소
The Last Rhino

감독 : 기욤 하비

캐나다 I 2023 I 19분 I 다큐멘터리

마지막으로 남은 북부흰코뿔소가 죽었다. 70세의 할머니 릴리는 꽤 여유로운 삶을 살아왔으나, 이 소식을 접하고부터는 기후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그녀는 손녀 가비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게 될까?

검은 소금
The Black Salt

감독: 니콜라 로렌친

이탈리아, 홍콩 I 2025 I 93분 I 다큐멘터리

안데스 산맥에서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리튬을 추출함에 따라 극적인 변화에 직면한다. 청년 지도자 바네사와 광부 엘비오는 원주민 커뮤니티 내의 긴장과 마주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불확실한 정치 상황 속에서 시위에 나선다.

시네마그린틴 상영작 소개 중·고등학생 추천

귀신없는 해질녘

Twilight without Ghosts

감독: 분타릭 파니탄

태국 I 2024 I 15분 I 다큐멘터리

기후 변화로 인한 거미들의 죽음 때문에 "피탁파아옴(기저귀 귀신)"의 신화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생명과 생태계의 상실을 넘어, 인간 활동으로 사라져가는 문화와 아름다운 지역 신앙에 관한 것이다. *피탁파아옴 = 황혼 무렵의 시간. 그들은 귀신들이 기저귀를 말리러 나온다고 믿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This is Not a Drill

감독 : 오렌 자코비

미국 I 2025 I 80분 I 다큐멘터리

기후 재난으로 흔들린 미국 남부, 세 인물이 거대 석유 산업에 맞선다. 저스틴은 멤피스 파이프라인 반대 연합을 조직하고, 로이셰타는 거리와 의회를 오가며 투쟁을 이어간다. 전 내부자 샤론은 프래킹 현장의 유해 가스 누출을 폭로하며, 빅 오일이 감춰온 진실이 드러난다.